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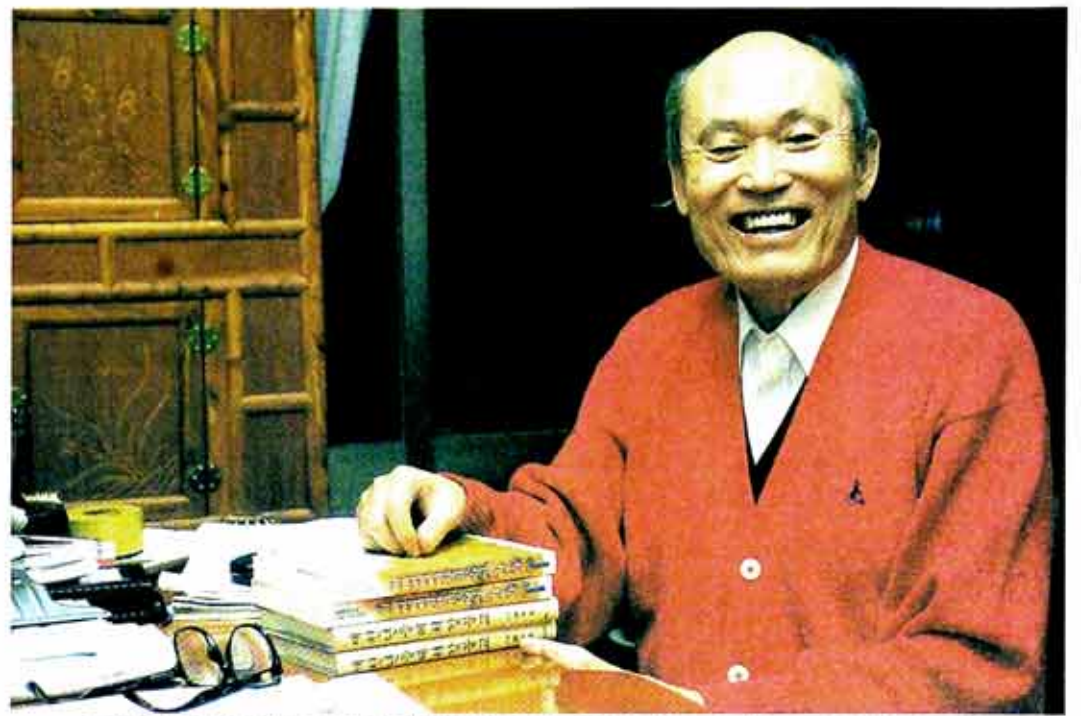
“사는동안 할 일 집착 끊는 공부뿐”

◇한갑진 회장이 사람과 신행단체에 보시기 위해 삶아온 <아함경> 전집을 살펴보고 있다.

노란 은행잎들이 흩날리는 늦가을 오후, 서울 필동에 살고 있는 일로 영화인 한갑진 회장(77·한진공업)의 집을 찾았을 때, 사람보다 책들이 먼저 맞아 주었다. 그가 펴낸 <아함경> 4권과 저서 <새 천년 해처갈 불교>가 출입문 주위에 그득한

때문이다. 한편에는 아직 포장되지 않은 책들도 두둑하다.

남산을 배경으로 들어선 그의 2층집은 걸보기와 다르게 온통 책의 향기로 가득하다. 마치 서고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다.



◇영화인에서 불서를 펴내고 보시하는 평범한 불자로 돌아온 한갑진회장. 그는 지금까지 10여권의 책을 펴냈다.

산문박의 禪

불서 펴내고 법보시 한갑진翁

“불교 알리기 여생 바치고 싶다”

한 회장도 <아함경> 전집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불서를 포장하는 일 속에서 불법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 작은 상자 속에 불법의 진수가 들어 있어요. 모든 불자들이 이 불법의 바다에 흠뻑 빠져들면 좋겠어요. 불교를 알리는 데 남은 생을 바치려 합니다.”

한 회장은 요즘 불서를 보시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아함경> 전집도 3만 권이나 찍어 전국의 사찰이나 신행단체에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0년대 말에 쓴 <부처님의 생애>를 1만 여권이나 보시했고, 그 이전에 쓴 <인도와 불교>, <알기 쉬운 불교> 같은 책들까지 포함하면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책을 보시해 온 셈이다. 그리고 지금은 2년 후 출간에 정조(부처님의 생애와 사상)를 집필하고 있다.

40여 년을 영화 만들기에 매진한 한 회장은 영화 ‘팔만대장경’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인이다. 팔만대장경 복원 제작과정은 담은 이 영화는 그에게 영화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제작비가 보통 영화 5배나 들었던 그 영화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팔만대장경은 몽골군의 침략 아래 16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 과감한 드라마였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자 한자 간절하게 판각하는 제작 과정을 자현하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련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수행정신이 아닐까요.”

수행은 한정된 공간이나 특별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행자가 치열하게 정진을 하듯 불자들도 자신이 일에 혼신을 다할 때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과 영화 만들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한 회장은 대영영화제작사(66년)에 이어 한진공업(70년)을 설립해 ‘김의 전쟁’은마는 오지 않는다’ ‘난중일기’ 등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로키’ ‘길은 밤 길은 꽃’ ‘스팅’ ‘스카이’ 등 많은 영화를 수입했다. 적지 않게 돈도 벌었다고 한다.

영화계의 대부(?)로 통하는 그가 만년에 불서를 만들어 보시하는 일을 두고 영화인들은 ‘영화에서 번 돈을 전부 불교에 갖다 바친다’고들 말한다. 그 때마다 한 회장은 ‘배우는 것처럼 아름다운 유익’ 등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로키’ ‘길은 밤 길은 꽃’ ‘스팅’ ‘스카이’ 등 많은 영화를 수입했다. 적지 않게 돈도 벌었다고 한다.

지난 72년 아버지의 죽음을 한 회장을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의식 불명의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머리맡에 놓여 있던 팔공경을 무심코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진아, 그 소리 참 듣기 좋다’며 의식을 차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즐겨 독송하던 <

아함경 전집 3만권 찍어

사찰·신행단체에 보급

80년대 말 법보시 시작

영화 ‘팔만대장경’도 제작

영화 ‘팔만대장경’도 제작

반야심경)이었다. 그 후 한 회장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반야심경>을 읽고 또 읽었다. 묵이 쉬어 독송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녹음을 해 아버님에게 <반야심경>을 들려드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신혼 병원에 위패를 모셨다. 그리고 1년 간 매일 새벽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아버지 위패에만 절을 했는데, 다음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왕 절을 왔으니 부처님한테도 절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절을 했어요. 한두 번 절을 하다 보니 왜 절을 하는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불교공부를 시작했지요.”

국내 불교서적뿐만 아니라 영화 일로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불교서적을 구입했다. 그리고 틈틈이 번역해가며 읽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첫 책이 <알기 쉬운 불교>다. 이 책은 1만여 권이 팔려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수많은 영화를 흥행시켜 돈트리올세계영화제, 아시아영화제, 대종상, 청룡상 등 국내외의 굴욕한 상을 휩쓸었던 한 회장. 그는 요즘 ‘일야행자(一夜野者)’를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지나간 일을 잊지 말고 지금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다. 여기에는 영화 등 그동안의 화려했던 삶과 미래에 대한 집착을 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한 회장의 인력이 숨어 있다.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집착을 끊는 것. 그 뿐입니다. 이 순간에 방일하지 않고, 공덕도 바라지 않는 삶이 내 생명과 하나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그는 특정한 수행법을 고집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선이란, 영불일체, 간경이든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모두 방편일 뿐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배움의 열을 넘쳐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팽배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배움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부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불교에서는 보시를 무엇보다 강조한

한갑진씨가 펴낸 책들

- <석존의 직판>(79) · <알기 쉬운 불교>(80)
- <불교경전>(80) · <알기 쉬운 불경집>(81)
- <알기 쉬운 불교사>(82) · <인도와 불교>(85)
- <알기 쉬운 법요집>(87) · <부처님 생애>(88)
- <진리의 말씀 김홍의 말씀>(94) · <2500년 전의 바구 비구니의 시>(95)
- <저승에 갔다는 사람들>(95) ·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98)
- <아함경>(전4권,00) · <새천년을 해처갈 불교>(00)

다. 물론 불자들이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함다문 보시는 바리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때 유명 영화인들이 들락거리던 그의 집은 ‘법당’이자 ‘정경각’이다. 2층의 작은 법당에는 영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방방마다 손때묻은 불서들로 가득하다.

저녁 예불시간이면 법당으로 향하는 한 회장은 <아함경>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일체세간 위에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위에도 아래에도 또 사방에도 원한 없이 자비심만을 베풀어라.”

글=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opia.com)



정세재와 떠나는

선·식·기·행

우영참쌀전병

연기대사의 제자인 환성스님의 설립은 그 이치가 오묘하여 명성이 자자했다. 법회를 여는 곳마다 수 천 명의 학인과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환성스님을 칭송하는 대중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 환성스님은 역모를 꾸민다는 누명을 쓰고 재주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7일

만에 순교한다. 환성스님이 열반에 들자 한라산이 소리내어 울고 바닷물이 끓어올랐다고 한다. 재주에도 전해지는 전설에는, 세 명의 성인(聖人)이 제주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중의 한 분이 바로 환성스님이었다고 제주 사람들은 믿고 있다.

어지럼증·뇌졸중·고혈압에 좋아

환성스님은 철저한 자연식주의자였다. 어느 때인가 명산 대찰을 여행하다가 며칠을 걸어도 죽 한 그릇을 보지 못하고 저녁 때가 되어 지리산의 어느 절에 도착했는데, 마침 저녁 공양 시간이었다. 욕심이 가득했던 그 절의 주지는 환성스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가 지났으며, 공양을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산수유열매로 시중가를 면하고 잠시 잠을 청한 스님의 꿈속에 서 한 도인이 나타나 “어서 이곳을 피하시오”라고 칭하는 것이었다. 환공이 그 절을 벗어난 스님이 발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우영 1토막, 참쌀 1컵, 식용유, 볶은 소금, 꿀(조청)

요리법 ① 우영은 겹질째 씻어서 골고루 잘고, 증과 건지를 분리한 후 증에서 녹말을 가라앉혀 걸러준다. ② 참쌀을 물에 담갔다 가루를 낸다. ③ 위의 재료를 소금으로 간을 하고 증과 반죽과 비슷한 감촉이 나게 반죽해서, 적당한 크기로 빚어 노릇하게 지진다. ④ 꿀이나 조청을 곁들여 먹는다.

효능 · 당뇨병, 폐결핵, 기침, 폐렴, 위염, 소화제로 쓰인다.

· 뇌졸중과 고혈압에 좋다. · 불임증, 생리불순, 중이염, 만성 부종, 어지럼증, 임파선암, 자궁경암, 직장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쓰는 좋은만 년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천목, 최고의 기성 **리빙스톤 돌침대**는 선택받은 귀화인의 것입니다.



- ▶ 종종 뛰면서 운동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 ▶ 좋은 잠자리의 꿈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고요? 뜸뜨기, 안자,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고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침대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 ◆ 목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볼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 고구사대, 난병병을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 ◆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 아침건강 - 배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속눈썹베개**

▶ 자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 통풍이 잘되고
어깨가 바깥으로 휘어 ▶ 세탁도 간편한 속눈썹 베개
베개를 바꾸십시오. **35,000~12,000원** 【특별가는 별도 소액스:3,500원】

시투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 단체 주문 환영 ※ 침대 3대 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할인가격 우대!! ☎ (02)424-9427/2203-7821